

- 주요 뉴스: 유로존, 경기부진 등으로 금리인하 기대 증가. 소비 회복 조짐도 상존
 - 미국, 11월 비농업고용자수 큰 폭 증가. 실업률은 4.1%→4.2%로 소폭 상승
 - BoE 덩그라 위원, 금리가 여전히 제약적이며 지속 인하할 필요
 - EU·남미공동시장(Mercosur), 협상 개시 25년 만에 자유무역협정(FTA) 타결
- 국제금융시장: 양호한 미국 고용지표, 금리인하 전망 지속 등이 영향
 - 주가 상승[+0.3%], 달러화 강세[+0.2%], 금리 하락[-3bp]
 - 주가: 미국 S&P500지수는 고용지표 개선 및 양호한 기업실적에 상승
유로 Stoxx600지수도 ECB 금리인하 기대에 상승
 - 환율: 달러화 가치는 장초반 금리인하 기대에 하락했으나 이후 반등하며 상승
유로화 가치는 0.17% 하락, 엔화는 BOJ 금리인상 기대에 0.07% 상승
 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고용 호조에도 금리인하 기대가 지속되며 하락
독일도 산업생산 부진에 따른 금리인하 전망 등으로 약보합

※ 뉴욕 1M NDF 증가 1423.95원(스왑포인트 감안 시 1425.5원, 0.2% 상승). 한국 CDS 강보합

		12/6일	12/5일	전일대비			12/6일	12/5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6,090.3	6,075.1	+0.25%	국채 금리 10y	미국	4.15%	4.18%	-3bp
	유럽	520.47	519.53	+0.18%		독일	2.11%	2.11%	-0bp
	중국	3,404.1	3,368.9	+1.05%		영국	4.28%	4.28%	-0bp
	일본	39,091	39,396	-0.77%		한국	36bp	36bp	+0bp
	한국	2,428.2	2,441.9	-0.56%	CDS 5y	중국	63bp	63bp	-0bp
환율	달러지수	105.97	105.71	+0.24%	위험 지표	EMBI+	-	368	-
	유로화	1.0568	1.0586	-0.17%		VIX	12.77	13.54	-5.69%
	엔화	150.00	150.10	+0.07%		WTI유	67.2	68.3	-1.61%
	위안화	7,2715	7,2581	-0.18%	원자재	구리	413.85	413.5	+0.08%
	원화	1,423.0	1,417.3	-0.40%		금	2,633.4	2,631.7	+0.06%

주: 주가는 미국 S 500, 유럽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ì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ECB, 경기부진 등으로 금리인하 기대 증가. 다만 소비 회복 조짐도 상존

- 다만 독일 10월 산업생산이 에너지 및 자동차 생산 둔화로 전월비 -1% 감소하고 예상치 +1%를 크게 하회. 전년동월비로는 4.5% 감소
- 한편 블룸버그 설문조사에 의하면, 응답자들의 절반 이상이 경제성장 부진과 예상보다 빠른 인플레이션 둔화로 인해 ECB가 기존 전망보다 금리를 빠르게 인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응답
- 다만 유로존 3분기 가계지출(qoq) 증가율이 전분기 0.0%에서 +0.7%로, 투자가 -2.4%에서 +2% 증가하며 민간을 중심으로 경기개선 조짐이 증가. 정부지출도 +0.5% 증가하였으나 직전분기 +1.2%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며 수출은 -1.5% 감소
- 독일 경제사회연구소(WSI), 독일 단체협상 임금이 '24년에 5.4% 인상될 것으로 전망하며 이에 따라 독일 경제부진의 주요 원인이었던 노동자들의 구매력 감소가 일부 개선될 것으로 기대
- 이 가운데 프랑스 정치 불안이 금융시장으로 파급될 가능성에 대해 쿠키스 독일 재무장관은 투자자들이 이에 대해 크게 동조(constructive and orderly)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언급하며 금융시장 불안에 대한 우려를 일축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미국, 11월 비농업고용자수 큰 폭 증가. 실업률은 4.1%→4.2%로 소폭 상승

- 11월 비농업고용자수는 22.7만명으로 10월 3.6만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. 제조업, 헬스케어 등이 일자리 증가를 견인
- 비농업고용자수 증가가 미국 고용시장의 견고함을 보여주지만, 그와 동시에 연준의 금리인하를 지연시킬 만큼 높은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 시장 컨센서스

■ BoE 딥그라 위원, 금리가 여전히 제약적이며 경제 활성화 위해 지속 인하할 필요

- 딥그라 의원은 민간소비와 투자 위축, 공급 감소 등을 문제로 지적하며 현재의 높은 금리(4.75%) 수준이 경기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. 이에 더해

임금상승 압력도 완화되고 있어 BoE는 중립금리로 추정되는 2.5%~3.5% 수준까지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

■ EU·남미공동시장(Mercosur), 협상 개시 25년만에 자유무역협정(FTA) 타결

- 폰데어라이엔 EU 위원장은 최근 글로벌 정세를 감안하면 금번 FTA는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적 측면에서도 필수적이라고 평가
- 다만, 남미산 농식품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업 비중이 큰 프랑스, 폴란드, 이탈리아 등의 반대가 적지 않은 상황. 특히 프랑스 정부가 최근 불신임안 가결 등으로 인한 자국 정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강하게 반대

■ 루마니아, 대통령선거 1차 투표 무효 선언으로 정정 불안 심화

- 루마니아 헌법 재판소는 러시아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극우 성향 후보인 제오르제스쿠의 선거 운동을 도왔다는 정황이 드러나자, 11.24일에 치러진 대선 1차 투표를 무효화하고 재선거를 명령

■ BoFA, 미국 주식시장 버블 형성 가능성 및 과열 위험 경고

- BoFA는 최근 주식시장 랠리로 인해 S&P500의 주가순자산비율(PBR)이 5.3배로 상승하여 닷컴버블 당시의 수준에 근접하는 등 고평가 부담이 확대되었으며, '25년 1분기에 과열(overshoot)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

■ 인도 중앙은행, 성장전망 하향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 우려에 기준금리 6.5%로 동결

- 인도 중앙은행은 '24년 3분기 성장률이 2년래 최저치를 기록한 점 등을 반영하여 FY24-25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7.2%에서 6.6%로 큰 폭 하향
- 인도 중앙은행은 성장둔화에도 불구하고 10월 인플레이가 목표범위를 초과한 점을 들어 인플레이 안정이 우선되어야함을 강조하며 시장 기대와는 다르게 기준금리를 11회 연속 동결. 다만, 유동성 공급을 위해 현금지급준비율은 50bp 인하

주요 경제지표

■ 다음주 주요 경제 이벤트(12/9~12/13,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11월 CPI상승률(11일), 중국 CPI상승률(9일)·무역수지(10일), 일본 단칸 제조업 업황지수(13일)

금융시장 주요 지표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246, E-mail swshin@kcif.or.kr